

어말어미의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

—36개월 이전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삼형 · 이필영 · 임유중**

<차 례>

1. 서 론
2. 종결어미의 습득 양상
3. 비종결어미의 습득 양상
 - 3.1 연결어미의 습득 양상
 - 3.2 전성어미의 습득 양상
4. 어말어미 습득 과정의 비교
 - 4.1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습득 과정 비교
 - 4.2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습득 과정 비교
5. 결 론

1. 서 론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영·유아 초기(36개월 이전)의 어미 습득 양상 및 과정을 살피는 데에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어미류가 비교적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로서, 그 범주 유형도 많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형태들의 수가 많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어미 체계나 형태들을 아동들이 어떤 과정으로 습득해 가는지를 검토해 보려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4-AM1055)

** 이삼형(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이필영(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유중(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 교수)

것이다. 36개월 이전 시기는 문장 구성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문 구성의 기본 능력이 갖추어지고 복합문 구성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어미 발달 양상을 보이는데, 이 연구는 단순문 구성과 연관되는 종결어미는 물론이고 접속어미, 전성어미 등 여러 어미 형태들의 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문장 구성 능력 발달의 일면을 밝혀 보려고 한다.

이 논의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어미의 발달 양상을 살필 것이다. 첫째는 어미 형태 수의 증가 면이다. 어미 형태의 수적인 증가는 그만큼 어미에 대한 습득이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이 출현하는 어미 형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미 범주별 습득 순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미 출현 빈도이다. 어미의 출현 빈도는 어떤 어미 형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나 어떤 어미 부류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시적인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준다.

3세 이전 아동의 어말어미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게 수행되어 왔다. 어미와 관련하여 36개월 이전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조명환(1982), 이인섭(1986), 이영자·이중숙·이정옥(1997), 이정민(1997) 등이 있다. 조명환(1982), 이인섭(1986)에서는 몇몇 아동에 관한 종적인 고찰에서 어미를 다른 문법 형태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어말어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미를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대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영자·이중숙·이정옥(1997)에서는 10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3세의 문법 범주 및 문장 유형의 발달을 다루고 있는데, 복합문 관련 어미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종결어미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정민(1997)도 종적인 자료에서 발견되는 몇몇 어말어미에 관한 서술이 있을 뿐 어말어미 전체적인 체계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아니다. 그밖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접속과 내포와 같은 복합문 구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의 발달 양상을 언급한 경우들이 있다(이순형/유안진 1982, 조명환 1982, 이인섭 1986, 김영주 1992).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24개월 이전 시기의 경우, 1주일에 1회씩 10개월 간 지속 녹음을 실시하고 있는 아동 총 22명 중 24개월 이전 아동 14명의 발화 자료를 50발화씩 전사한 것이다(<표 1>). 24개월 이전 시기는 한 시기로 묶어 더 나누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24-36개월 시기의 자료인데, 1주일에 1회씩 10개월 간 지속 녹음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 아동 총 22명 중에서 24개월 이후의 녹음 대상 8명의 발화 자료 중 일부를 대상으로 2,000어절씩 전사한 것이다(<표 2>). 여기에는 부모의 말도 포함되어 있어서 2,000어절 전체가 아동의 발화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24-35개월 시기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총 40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곧 24-29개월 시기의 남녀 아동 각 10개, 30-35개월 시기의 남녀 아동 각 10명씩 하여 총 40개 파일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다. 자료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24개월 이전 자료 현황

구분	24개월 이전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대상파일	9개	9개	7개	11개	14개	12개	9개	12개	14개	8개	9개	13개	127개

<표 2> 24-35개월 자료 현황

구분	24-29개월						30-35개월						합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대상파일	6개	6개	2개	2개	2개	2개	1개	2개	6개	5개	4개	2개	40
합계	20						20						

24개월 이전 자료는 파일 수가 많은 대신 발화 수가 적고, 24개월 이후의 자료는 파일 수가 적은 대신 발화 수가 많다. 24개월 이전과 이후의 자료 성격이 다소 다른 면이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4개월 이전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현 어미 형태는 그리 많지 않아서 점진적인 어미 습득 과정을 살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종결어미의 습득 양상

35개월까지 아동 발화 자료에서 출현한 서술형 종결어미의 형태와 출현 빈도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서술형 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형태	24개월 이전	24-29개월	30-35개월
-어	151(81.18%)	479(67.28%)	1015(58.94%)
-다/는다	23(12.37%)	158(22.19%)	302(17.54%)
-지	6(3.23%)	10(1.40%)	70(4.07%)
-네	2(1.08%)	23(3.23%)	41(2.38%)
-르게	2(1.08%)	9(1.26%)	61(3.54%)
-버니다	1(0.54%)	2(0.28%)	30(1.74%)
-어야지	1(0.54%)	4(0.56%)	33(1.92%)
-ㄴ/은/는데	—	8(1.12%)	57(3.31%)
-잖아	—	7(0.98%)	49(2.85%)
-다고	—	6(0.84%)	8(0.46%)
-르래	—	5(0.70%)	15(0.87%)
-라고	—	1(0.14%)	4(0.23%)
-세요	—	—	20(1.16%)
-나	—	—	7(0.41%)
-(는)다니까	—	—	2(0.12%)
-라	—	—	4(0.23%)
-애	—	—	3(0.17%)
-더라	—	—	1(0.06%)
총계	186(100%)	712(100%)	1,722(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술형 어미 형태수의 증가 양상을 보면, 24개월 이전 7개의 서술형 어미가 출현한 이후, 지속적으로 목록이 추가되어 30-35개월 시기에는 18개의 어미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어미 수가 양상은 표현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의 의

사를 좀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24개월 이전에는 “나 응가해”처럼 “-어” 형태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다가 24개월 이후에는 “나 응가할래”처럼 “-르래”라는 좀더 분명하고 적절한 어미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미 형태들은 모두 서술형이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각 형태마다 의미 기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표현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가는 발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빈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역시 “-어” 형태이다. 그 다음으로 “-는다/다”, “-지”의 빈도순을 보여준다. 빈도로만 보면 이 “-어, 는다” 형태를 제외하고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한편 괄호 안에 제시된 상대적인 비율은 상당히 불규칙한 양상을 드러낸다. 가령 “-어”의 경우에는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81%에서 24-29개월 시기가 되면 67%, 30-35개월 시기가 되면 5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어” 형태만으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하다가 점차 어미가 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다/는다”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전 12%에서 24-29개월이 되면 22%로 일단 늘었다가 30-35개월 시기가 되면 17%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빈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나 형태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는 듯 하다.

둘째로 감탄형 어미의 경우를 보면, 29개월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는구나” 형태가 30개월 이후에 4회 출현을 한다. 학교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어미 형태 중에서 가장 늦게 나타나는 어미 범주이다. 그 이유는 의미의 복잡성 때문일 수 있다. “-는구나”의 의미는 “처음 앎”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장경희 1985).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표현할 때 “-는구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인 유효성은 아동에게 복잡성을 안겨줄 수 소지가 다분하며, 이 때문에 감탄형 범주가 뒤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의문형 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의문형 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형태	24개월 이전	24-29개월	30-35개월
-어	11(52.38%)	57(59.38%)	175(45.45%)
-지	8(38.10%)	7(7.29%)	103(26.75%)
-르까	2(9.52%)	16(16.67%)	34(8.83%)
-니	—	5(5.21%)	6(1.56%)
-나	—	4(4.17%)	18(4.68%)
-고	—	4(4.17%)	2(0.52%)
-라고	—	1(1.04%)	5(1.30%)
-다고	—	1(1.04%)	2(0.52%)
-네	—	1(1.04%)	1(0.26%)
-게	—	—	11(2.86%)
-는가	—	—	7(1.82%)
-는데	—	—	6(1.56%)
-르래	—	—	5(1.30%)
-냐	—	—	3(0.78%)
-이야지	—	—	3(0.78%)
-잖아	—	—	3(0.78%)
-세요	—	—	1(0.26%)
총계	21(100%)	96(100%)	385(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24개월 이전 3개의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는데, 개월 수가 증가하면서 형태도 점점 추가 되어 30-35개월 시기가 되면 17개 형태가 나타나서 많은 어미 형태의 습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서술형과 마찬가지로 “-어” 형태이다. 확인의 의미를 지닌 “-지” 형태도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대체로 “-어, -지, -르까”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어미 형태들은 다른 범주 유형이나 어미 형태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빨리 습득되는 범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는 그 기능 부담량이나 의미 기능이 폭넓은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¹⁾ 이는 “-어” 형태가 그만큼 다른 형태들에 비해 일찍 습득되고 아동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 어미 형태가 다른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어미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어미 형태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무표적인 어미 형태를 먼저 습득한 후 유표적인 어미 형태를 습득하는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²⁾

넷째로, 명령형 어미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36개월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명령형 어미의 형태와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5>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명령형 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형태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어	26(96.30%)	122(96.06%)	313(87.19%)
-세요	1(3.70%)	4(3.15%)	39(10.86%)
-라	—	1(0.79%)	6(1.67%)
-라니까	—	—	1(0.28%)
총계	27(100%)	127(100%)	359(100%)

- 1) 성인의 문법에서는 가령 “-어”나 “-르 까”나 모두 대등한 의문형 종결어미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좀더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어미가 있는가 하면 다소 유표적인 어미 형태가 있다고 본다(장경희 1995). 가령, “-어” 형태의 경우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의 의미 기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어미 형태이다. 실제 사용 분포나 빈도를 보아도 다른 어미 형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 2) 아동의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각해 보아도 계층적으로 상위 범주를 먼저 습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어적인 노출 정도, 의미 및 기능 파악의 용이성, 기능 부담량을 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위 범주에 속하는 무표적인 형태들은 모두 유표적인 하위 범주에 속하는 형태들보다 조기 습득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부모들은 아동들과 이야기 할 때 문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표현을 피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어미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의미 파악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유표적인 형태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그만큼 더 많은 의미 자질을 지닌 것들이기 때문에 상위 범주의 어미 형태에 비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준다. 또한 기능 부담량의 경우에도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들보다 기능 부담량이 더 높을 것임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명령형 어미의 경우에는 서술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에 비해 추가되는 목록 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명령형 어미 형태가 원래 많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거나와 “주다”라는 보조용언이 24개월 이전에 이미 습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빈도를 보면 역시 “-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명령형 어미인 “-라” 형태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청자 존대의 “-세요” 형태는 30개월 이후에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존대법과 관련된 발달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청유형 어미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24개월 이전에 “-자” 형태가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빈도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6>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청유형 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형태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자	1(100%)	18(100%)	53(96.36%)
-어	—	—	2(3.64%)
총계	1(100%)	18(100%)	55(100%)

24-29개월 시기에 청유형 어미 형태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 30-35개월 시기에 이르러서야 “-어” 형태가 청유형으로 사용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종결 어미 형태의 증가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종결 어미의 출현 형태 수

구분	24개월 이전 형태 수(%)	24-29개월 형태 수(%)	30-35개월 형태 수(%)
서술형	8(57.14%)	12(50.00%)	16(42.10%)
감탄형	—	—	1(2.63%)
의문형	3(21.42%)	9(37.50%)	16(42.10%)
명령형	2(14.28%)	2(8.33%)	3(7.89%)
청유형	1(7.14%)	1(4.16%)	2(5.26%)
총계	14(100%)	24(100%)	38(100%)

24개월 이전 시기에 감탄형을 제외한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출현을 하는데, 그 형태 수를 보면 서술형이 가장 많은 어미 형태가 출현한다. 대체로 서술형이 가장 앞서서 출현하며 그 다음 명령, 의문형이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으로 청유형이 나타난다.³⁾ 의문형과 명령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어미 형태만이 나타나고 청유형의 경우에는 1개 형태만 나타난다. 24-29개월이 되면 서술형 어미 12개, 의문형은 6개, 명령형 2개, 청유형 1개가 나타난다. 서술형과 의문형은 어미 목록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의문형 어미가 더 많이 추가되고 있다. 명령형은 그 출현 형태는 일부 달라지지만, 숫자상으로 변함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어미 추가가 덜 이루어진 모습이다. 청유형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다. 감탄형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35개월 시기에는 감탄형 어미가 처음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서술형과 의문형 16개, 명령형 어미 3개, 청유형 2개가 나타나고 있다. 의문형 어미가 가장 많이 추가되고 있으며, 서술형도 비교적 많은 목록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서술형과 의문형의 목록이 많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류에 속하는 어미 형태들이 다른 부류에 비해 원래 많기 때문이며, 명령형과 청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목록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이 범주류의 어미 형태가 적은 탓이다.⁴⁾

한편, 출현 종결 어미 범주의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본 연구에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서술형의 경우는 15개월 정도에 처음 출현하고, 의문형의 경우는 17개월, 명령형의 경우는 18개월, 청유형의 경우는 23개월 정도에 출현을 한다. 그런데, 이정민(1997)에서는 요청의 “-어”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평서문의 “-어”, 청유의 “-자”, 의문의 “-어”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료 수집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대상 아동의 차이일 수도 있을 텐데 추후 좀더 정밀한 보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정민(1997)에서는 “윤정이의 경우 1:1에 빨리 왜요칭이 나타나고 그 이전 11개월 무렵 거의 동시에 “아푸다, 아떠, 좋다”가 나타난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 서술이 맞다면 서술형이 먼저 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음 요청 출현의 예로 제시한 “줘 봐”의 경우도 보조용언 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어미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진다.

4) 의문형 어미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호기심이 강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8>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명령형 어미의 출현 빈도

구분	24개월 이전 빈도수(%)	24-29개월 빈도수(%)	30-35개월 빈도수(%)
서술형	186(79.15%)	712(74.71%)	1722(68.20%)
감탄형	—	—	4(0.16%)
의문형	21(8.94%)	96(10.07%)	385(15.25%)
명령형	27(11.49%)	127(13.33%)	359(14.22%)
청유형	1(0.43%)	18(1.89%)	55(2.18%)
총계	235(100%)	953(100%)	2525(100%)

빈도수를 보면 개월 수가 높아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개월 수가 많아질수록 발화도 늘어나고 습득되는 어미 형태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4개월 이전 시기의 경우에는 서술형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의문, 명령도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반면에 청유형의 경우에는 1회만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습득되는 어미류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어미 형태들은 24-29개월, 30-35개월 시기가 되면서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감탄형의 경우에는 30개월 이후에 출현하는 어미 형태이므로 빈도가 4회에 불과하다. 다른 어미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습득되는 어미 형태라 할 수 있다.

각 범주별로 상대적인 분포를 보면, 서술형의 경우에는 다른 범주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 중에서 24개월 이전 시기에는 서술형 어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79.14%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점점 감소하여 24-29개월 시기에는 74.71%, 30-35개월 시기에는 68.2%로 비율이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어미류들이 점차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서술형 어미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에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서술문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던 아동이 서술형 이외의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 어미 등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3. 비종결어미의 습득 양상

3.1 연결어미의 습득 양상

학교 문법에서 연결어미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한다. 우선 대등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고” 형태만 나타난다.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대등적 연결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구분	형태	24개월 이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나열	-고	0	25	77

대등적 연결어미는 35개월까지도 ‘-고’ 형태만 출현할 뿐, 아직 대조의 ‘-지만’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나열 관계가 대조의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의미 관계임을 암시해 준다고 본다.

그런데 뒤에서 다룰 종속적 연결어미로서의 ‘-고’는 24개월 이전에 출현한다. 이처럼 대등적 연결어미 ‘-고’가 종속적 연결어미 ‘-고’에 비해 늦게 출현하는 것은 의외이다. 성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독립적인 사건이나 행위 등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대등 관계가 상호 종속적으로 관련을 맺는 종속 관계에 비해 더 쉬울 듯도 하다. 그런데 오히려 종속 구성이 먼저 출현을 하고 대등 구성은 늦게 발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나열 관계는 굳이 연결어미를 빌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등 관계의 두 사건을 단순문으로 차례로 표현하면 그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동이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에 종속적 접속어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종속적 연결어미의 출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5) 이영자·이종숙·이종욱(1997)에서는 연결어미의 경우 1-3세에 “-고, -나, -서, -면, -니까, -다가, -랑, -테”의 8종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비해 연결어미 형태가 적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와 “테”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1;6-2;0)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고”의 경우 1세에 2회, 2세에 20회, 3

<표 10>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종속적 연결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구분	형태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조건	-면	1(20.00%)	10(18.52%)	59(16.43%)
계기동시	-고	3(60.00%)	11(20.37%)	81(22.56%)
	-어서	1(20.00%)	6(11.11%)	33(9.19%)
	-면서	—	1(1.85%)	—
미침	-게	—	9(16.67%)	16(4.46%)
당위	-어야	—	5(9.26%)	56(15.60%)
상황	-는데	—	4(7.41%)	23(6.41%)
목적	-려고	—	3(5.56%)	9(2.51%)
	-러	—	2(3.70%)	7(1.95%)
원인이유	-어(서)	—	2(3.70%)	22(6.13%)
	-으니까	—	1(1.85%)	15(4.18%)
	-더니	—	—	1(0.28%)
양보	-어도	—	—	12(3.34%)
전환	-다가	—	—	25(6.96%)
총계		5(100%)	54(100%)	359(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계기와 조건의 어미 형태만 출현했던 24개월 이전에 비해 24-29개월 시기에는 원인/이유(-어서, -니까), 목적/의도(-러, -려고), 미침(-게), 필연/당위(-어야), 상황(-는데)의 어미 범주들이 새롭게 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미 범주의 발달은 인지 발달과 관련하여 암시하는 바가 크다. 원인/이유의 “-어서”가 출현하는 것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다. 목적, 의도의 “-러, -려고”는 자신의 의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인지하고 그것을 적절히 표

세의 경우 54회 나타나며 “-데”의 경우 1세 3회 2세에는 안 나타나고 3세에 7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 -어서, -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반해 다소 다른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다음 “-나, -서, -면”(2;0-2;6)인데, 1세에는 나타나지 않고 2세에 “-나”는 1회, “-서”는 3회, “-면”도 3회 나타나고 3세에는 “-나, -서”가 5회, “-면”은 20회 나타난다고 하여 역시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어미의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은 빈도이기 때문에 그 습득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본 연구에서 다른 자료들에 비해 형태 수도 적고 빈도도 낮은 편이다.

현할 수 있는 능력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당위의 “-어야”는 원하는 결과에 관한 조건이나 행동의 당위성에 관한 인지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인지 발달과 형식의 발달 시기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인지 내용을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능력 발달 국면이다.

한편 24-29개월 시기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양보(-어도), 전환(-다가)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 범주가 30개월 이후에 출현하고 있다. “-게”의 경우는 24-29개월 시기에 보조적 연결어미인 “-게”는 나타나는데(상당하게 해), 종속적 접속어미인 “-게”는 30개월 이후에 나타난다(사이좋게 같이 놀자). 이런 구분은 문법 이론상의 관점이고 그 의미 기능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0-35개월 시기에 일어나는 새로운 범주 유형의 출현은 양보의 “-어도”와 전환의 “-다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의미 범주 유형의 어미 출현은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한 발달 양상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종속적 연결어미의 경우 동일 범주의 어미 형태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4개월 이전에는 계기/동시 접속의 경우 “-고, -어서”만 나타났었는데, 24-29개월 시기에는 “-면서” 형태가 추가되고 있다. 한편, 30-35개월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는 없던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더니”라는 어미 형태가 추가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 범주의 어미 형태 목록의 추가가 적은 이유는 이미 습득된 어미 형태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별로 불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빈도를 보면 24개월 이전에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빈도가 최고 3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습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양상을 보이다가 24-29개월 시기를 거쳐 30-35개월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어미 형태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면서”나 “-더니”와 같은 형태들은 빈도가 1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본격적으로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보조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그 형태 수에 변화가 크지 않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보조적 연결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형태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어	26(66.67%)	70(62.50%)	140(59.57%)
-게	10(25.64%)	9(8.04%)	19(8.09%)
-고	3(7.69%)	24(21.43%)	32(13.62%)
-지	—	9(8.04%)	44(18.72%)
총계	39(100%)	112(100%)	235(100%)

위에서 보듯이 보조적 연결어미의 경우는 이미 24개월 이전에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종속적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에 의한 복합문 구성 능력이 생기기 전에 보조 용언 구성이 먼저 발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용언이 연이어 나오는 통사적 구성이 보조용언 구성과 복합문 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이 “본용언+본용언” 구성보다 일찍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형태적으로만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용언이 반복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보조용언 구성 능력의 발달은 복합문 구성 능력 발달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4-29개월 시기를 거치면서 “-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지”는 장형 부정(-지 않다/못하다/말다)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 형식으로 볼 때는 단형 부정 시기에서 장형 부정 시기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⁶⁾

빈도수를 보면 24개월 이전에도 이미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대등적, 종속적 연결어미가 24개월 이전에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 구성이 복합문보다 일찍 출현하여 발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6) 단형부정이 먼저 습득되고 장형부정이 그 이후 시기에 습득된다는 점은 이인섭(1986)에서 언급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연결어미 중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가장 빨리 습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보조적 연결어미 “-아, -게, -지, -고” 중에서 24개월 이전에 이미 “-아, -게, -고” 형태가 나타나서 거의 모든 형태가 출현하는데 반해, 종속적 연결어미의 경우는 수많은 형태 중에서 3개 형태만이 나타난다. 24개월 이전에 대등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출현조차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적 연결어미-종속적 연결어미-보조적 연결어미의 순으로 발달함으로 알 수 있다.⁷⁾

3.2 전성어미의 습득 양상

전성어미는 내포문 구성의 발달을 기늬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전성어미의 출현 형태와 빈도

구분	형태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관형형	-은	4(66.67%)	28(45.90%)	235(72.53%)
	-을	2(33.33%)	28(45.90%)	73(22.53%)
	-던	—	—	3(0.93%)
명사형	-기	—	5(8.20%)	13(4.01%)
총계		6(100%)	61(100%)	324(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24개월 이전에 관형형 어미 “-은, -을”이 출현하는데, 30-35개월 시기가 되면 관형형 어미의 경우에도 “-던” 형태가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명사형 어미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는 출현을 하지 않다가 24개월 이후 시기에 “-기” 형태가 출현을 한다. 35개월까지도 “-음”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명사형 어미의 경우는 “-음”보다 “-기”가 먼저 습득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 습득 시기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연결어미 중에서 보조적 연결어미가 가장 빨리 습득되는 범주임은 빈도수를 보아도 입증된다. 24개월 이전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모두 합해서 5회 출현하는 데 반해서 보조적 연결어미의 경우는 39회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각 범주의 출현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관형형 어미 “-은/는, -을/를”의 경우를 보면 24개월 이전 시기부터 출현을 하여 점점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24개월 이전에 출현하는 관형형 어미의 출현 예는 다음과 같다.

- (1) 가. 아얀 거. {하얀 것이다} (22개월)
 - 나. 내 큰 거. {나는 큰 거 쥐} (23개월)
 - 다. 여우는 평동헨 거야. {여우가 초인종을 누른 거야} (22개월)
- (2) 가. 치하꼬야. {오줌 놀 거야} (23개월)
 - 나. 할 뚜 이떠. {할 수 있어} (22개월)

위의 예를 보면 항상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구성에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이다. 특히 의존명사 “-것”과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존명사 “-수”와 결합하는 예가 “할 수 있어”라는 표현에서 1회 나타난다. 아직은 복합문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관형형 어미의 용법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24개월 이후에도 이런 쓰임들이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표현에 관형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 현저한 발달 양상을 살필 수 있다.

- (3) 가. 잘 만드는 거 같은데. (28개월)
 - 나. 파란 꽃. (24개월)
 - 다. 곰돌이도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준대. (27개월)
 - 르. 할머니가 갖고 있는 가방. (26개월)
- (4) 이모 있을 때 쉬했어. (24개월)

(3)은 “-은/는”의 예이고, (4)는 “-을/를”의 예이다. (3 가)의 경우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것”과 결합한 예이지만 “-것이야”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이 아니라 “-것 같은데”라는 통사적 구성과 결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나, 다)의 경우는 의존명사가 아닌 일반명사 “꽃, 아이”와 결합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일반 명사를 수식하는 용

법이 나타난다. 특히 (3ㄷ)의 경우는 전형적인 내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ㄷ)의 경우는 명사구 보문의 예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복합문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관형형 어미의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출현 양상을 볼 때, “-는구나” “-을거야”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보면 전형적인 관형형 어미가 출현하는 시기는 24-29개월 시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한편, 명사형 어미의 경우를 보면, 24개월 이후 시기가 되면 “-음”은 출현하지 않고 “-기”가 먼저 출현을 한다. “-기”의 경우는 한국어 문법에서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2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습득의 관점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더욱 어려운 면이 있다. 발화된 결과로 판단을 해야지 성인의 언어처럼 부사 삽입 등의 가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접미사와 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형태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24-29개월 시기에 “-기” 형태가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엄마는 여기 앉기. (28개월)
- (6) 가. 블록쌓기 만들자. (28개월)
- 나. 블록쌓기하면서 놀아. (28개월)

성인 문법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5)는 명사형 어미의 경우이고, (6)는 접미사로 인정할 수 있는 예로 보인다. (6)의 “블록쌓기”는 물론 사전에 없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로 볼 수도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형태

8) 이영자·이종숙·이정옥(1997)에서는 “먹을 거 있어”와 같은 관형절이 33개월이 되어야 처음으로 출현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아동의 대화를 한 시간 동안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 것을 보면 원자료의 성격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대상 아동의 수가 본 연구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관형절의 출현 시기가 본 연구의 자료보다도 늦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론적 구성에 가깝게 볼 수도 있으나, 어떠한 명사형 어미의 “-기”와 관련된 첫 출현 양상이다. 대체로 (6)과 같은 용법이 (5)에 비해서는 빈도 수가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접미사적인 “-기”의 쓰임에서 명사형 어미의 용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가정도 가능할 듯 하다.

한편 (5)의 예는 다소 특이한 면이 있다. (5)의 발화는 사실 명사구절 이라기보다는 전체 문장과 대등한 발화이다. 마치 성인의 언어에서 공고문이나 공지문 같은 데에 나타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 것”과 같은 표현이다. 30-35개월 시기에도 이런 표현(나란히 올리기, 아빠 찾아오기, 계단 만들기)들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것 역시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 습득의 전단계로 볼 수 있을 듯도 하다.

30-35개월 시기가 되면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의 사용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7) 가. 토끼하고 나하고 카드찾기하려고 / 카드찾기하고 놀게. (33개월)
- 나. 빼는 거 붙이기 하자. (32개월)
- 다. 아가는 자꾸 울기만 해. (32개월)
- 르. 세기 싫은가 봐. (35개월)

위와 같은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의 용법은 30개월 이후 시기에 첫 출현한다. 인지 발달과 관련지어 보면 사물과 동작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작의 대상화”가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전성어미는 24개월 이전에 관형형 어미 “-은, -을”이 출현하는데, 명사형 어미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는 출현을 하지 않다가 24개월 이후 시기에 “-기” 형태가 출현을 한다. 관형형 어미가 명사형 어미보다 빨리 습득된다고 볼 수 있다.⁹⁾

9) 빈도의 측면에서도 명사형에 비해 관형형 어미의 빈도가 높다.

4. 어말어미의 습득 과정 비교

4.1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습득 과정 비교

지금까지 출현 형태와 빈도를 바탕으로 어미의 세부 유형별 습득 양상을 검토하였다.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의 습득 과정을 비교해 보면, 종결어미가 비종결어미에 비해서는 빠른 습득 양상을 보여준다. 출현 시기를 보아도 종결어미가 앞설 뿐 아니라 출현 형태나 빈도의 측면에서도 종결어미가 앞선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시기별로 보아 종결어미가 비종결어미에 비해 빨리 출현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종결어미의 경우는 15개월 정도에 처음 출현하는데, 비종결어미는 22개월 정도가 되어야 출현을 한다.¹⁰⁾ 문장 구성 능력의 발달이 단순문 구성 능력의 발달에서 복합문 구성 능력의 발달로 나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둘째, 형태 수를 비교해 보아도 종결어미가 먼저 발달한 후 비종결어미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모든 어말어미의 형태 수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36개월 이전의 전체 출현 어말어미의 형태수

범주	24이전	24-29	30-35	비고
종결어미	14	24	38	서술, 감탄, 의문, 명령, 청유
연결어미	6	15	18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
전성어미	2	2	4	관형형, 명사형 어미
총합	22	41	64	

위의 표에서 보면 종결어미는 단순문 구성에 관련된 범주이고,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등은 복합문 구성과 관련된 범주이다.¹¹⁾ 그런데, 위의

10)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이필영/임유중(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어미 형태수가 24개월 이전에는 22개인데, 24-29개월 시

표를 보면 24개월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종결어미가 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다. 24개월 이전 시기에 단순문 구성 능력의 발달이 앞서고 이후 시기에 복합문 구성 능력이 발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발달 양상은 출현 빈도의 측면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출현하는 전체적인 어미의 출현 횟수와 하위 범주별 출현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4>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어말어미의 출현 빈도

구분		24개월 이전 빈도(%)	24-29개월 빈도(%)	30-35개월 빈도(%)
범주별 출현	종결어미	245(83.05%)	949(79.35%)	2522(71.77%)
	연결어미	44(14.92%)	191(15.97%)	671(19.10%)
	전성어미	6(2.03%)	56(4.68%)	321(9.13%)
총 출현수		295(100%)	1,196(100%)	3514(100%)

위의 표를 보면 단순문 구성 요소인 종결어미의 빈도가 24개월 이전에는 83.05%였던 것이 24개월 이후가 되면 79.35%, 30개월 이후가 되면 71.7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복합문 구성 요소인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상대적으로 점점 상대 빈도가 높아지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결어미의 경우는 24개월 이전 시기에 14.92%였으나 24개월 이후에는 15.97%, 30개월 이후에는 19.10%로 늘고 있으며, 전성어미의 경우는 24개월 이전 2.03%에 불과하던 것이 9.13%까지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문 구성을 많이 사용하다가 복합문 구성의 사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습득 과정 비교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중에서는 어느 범주가 빨리 발달할 것인가? 이

기에는 45개, 30-35개월 시기가 되면 64개로 늘어나고 있어 거시적인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에 관해서는 두 범주 형태의 출현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하위 범주도 많을 뿐 아니라 어미 형태도 많은 반면에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범주 체계도 간단하고 어미 형태도 많지 않다는 차이점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추론해 보자면, 전성어미류가 좀더 일찍 발달할 개연성이 높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어미 형태수가 적고 체계도 간단하면 아무래도 습득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어미류는 선적인 접속 구성인데 반해 전성어미류는 계층 구조인 내포 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연결어미류가 좀더 손쉬운 측면이 있다.

실제 양상도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부류가 먼저 발달하는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어미 체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성어미류가 좀더 빨리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24-29개월 시기가 되면 모든 전성어미 범주의 어미 형태가 하나씩은 일단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결어미류의 경우는 30개월 이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어미 체계가 완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전성어미의 발달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전성어미 범주가 하위 범주나 어미형태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실제 사용 예를 보면 연결어미의 경우는 전형적인 접속문 용례들이 비교적 일찍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빈도도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전성어미의 경우는 통사론적 구성이라기보다는 “-을 거야, -는 거야”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이 대부분이다.

- (8) ㄱ. 손씻고 우유먹고 치카치카해 (22개월)
- ㄴ. 어흥이 없으면 자. (22개월)
- (9) ㄱ. 쉬할 거야. (24개월)
- ㄴ. 내가 먹은 거야. (23개월)

(8)에서 보듯이 연결어미의 경우는 전형적인 접속문 구성으로 어미 발달 양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9)와 같은 용례가 대부분이어서 전형적인 관형형 어미의 발달로 볼 수 있을 것인

지가 다소 막연하다. 24개월 이후에도 서너 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을 거야, -은 거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결어미의 발달이 다소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위 유형간의 순서까지 고려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가령 연결어미 중에서 보조적 연결의 경우는 그 출현 형태수나 빈도로 볼 때 전성어미류보다 일찍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등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전성어미에 비해 출현 시기가 다소 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종결어미가 가장 앞서서 발달하고 이어서 보조적 연결어미가 습득되는 순서를 보인다. 그 다음에 관형형 전성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가 비슷한 시기에 발달하는데, 전형적인 어미 용법의 관점에서 보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다소 앞서 발달하고 대등적 연결어미와 관형형 전성어미의 발달이 비슷한 시기에 발달하는 듯 하다. 대등적 연결어미에 비해 관형형 전성어미가 출현 시기는 앞서지만 전형적인 관형형 전성어미의 용법이 발견되는 시기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시기와 동일하므로 같은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명사형 어미의 경우는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어미류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달하는 범주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출현 시기만으로 보면 24-29개월 시기로 대등적 연결어미와 동일한 시기이지만 전형적인 명사형 어미의 용법은 30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24개월 이전에는 주로 단순문 구성 요소인 종결어미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24개월 이후에는 복합문 구성 요소인 비종결어미의 발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개월 이후, 종결어미의 경우는 범주 유형이 추가됨이 없이 개별 어미 형태들의 추가 양상이 두드러진 반면에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의 경우는 새로운 범주의 어미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종결어미의 경우 24개월 이전 시기에 이미 모든 범주 유형의 어미들이 발달하였기 때문인데, 그 이후는 새로운 어미 목록이 추가하여 감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가는 양상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비종결어미의 경우는 24개월 이전 시기에 일부만 습득된 단계이므로 그 이후 시기인 24-36개월 시기에도 꾸준히 새로운 범주 유형의 어미들이 발달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종결어미의 습득은 사건을 일정 단위로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고, 그것들 사이의 다양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발달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36개월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미 발달 양상을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결어미의 경우 감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24개월 이전에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종결어미의 경우는 24개월 이전에 습득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등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24개월 이후부터 35개월까지 “-고” 형태만 나타난다. 대조의 “-으나, -지만”, 선택의 “-거나, -든지”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게 발달하는 어미 범주임을 알 수 있다.

(3) 종속적 연결어미의 계기(-어서, -고)와 조건(-면)의 어미 형태만 출현했던 24개월 이전에 비해 24-29개월 시기에는 원인/이유(-어서, -니까), 목적/의도(-러, -려고), 미참(-게), 필연/당위(-어야), 상황(-는데)의 어미 범주들이 새롭게 출현을 하며 30개월-35개월 시기에는 양보(-어도), 전환(-다가)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 범주가 출현한다. 이러한 발달 순서는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크다고 하겠다.

(4) 보조적 연결어미의 경우는 가 21개월에 출현하여 24개월 이전에 “-어, -게, -지, -고” 형태 중에서 “-어, -게, -고” 형태가 출현한다. 24개월이면 “-지” 형태도 나타나서 어미 체계의 습득이 완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5) 관형형 전성어미의 경우는 출현 시기는 24개월 이전이지만 복합

문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어미의 용법은 24개월 이후부터이다.

(6) 명사형어미의 경우 24개월 이후에 출현을 하는데 복합문 구성과 관련된 명사형 어미의 용법은 30개월 이후에 나타난다.

(7) 어미류의 상대적인 발달 순서는 대체로 종결어미-연결어미-전성어미의 순이다.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경우는 그 출현 시기가 빈도가 비슷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형적인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연결어미가 다소 앞선 발달 양상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36개월 이전 영·유아의 어말어미의 발달에 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다소 포괄적인 대상을 다루다 보니, 각 개별 어미 형태의 습득이나 발달 과정을 세밀히 기술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 관한 연구는 추후로 미룬다.

<참고 문헌>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김영주(1992), “동사의 움직임 융합 유형과 공간어 습득”,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아카넷.
김종록(1993), “국어 접속문의 통사론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남기삼(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삼·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 출판부.
서태룡(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윤일선(1975), “문법의 측면에서 본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순형·유안진(1982), “한국아동의 언어 획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7권.

- 이영자·이종숙·이종욱(1997), “1, 2, 3세 유아의 의미-통사적 발달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 이은경(1999), “2~4세 유아의 격조사발달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익섭·이상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인섭(1973), “유아어에서의 부정현상 - 현영(2;3)의 문법.”, 『노산 이은상 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 이인섭(1986),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1997), “언어 습득과 화용 규칙”, 『새국어생활』 제7권 1호.
- 장경희(1985),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호, 한글학회.
- 조명현(1973), “초기아동의 언어획득에 관한 일 연구”, 『이의철 박사 화갑 기념논총』.
- 조명현(1982), 『한국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출판부.
- 조숙환(1997), “언어 습득론”, 『새국어생활』 제7권 제1호.
- 한 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 출판부.

<초록>

어말어미의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

- 36개월 이전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

이삼형 · 이필영 · 임유종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의 어미 습득에 대하여 밝히는 데에 있다. 어미를 습득하는 첫 단계는 종결어미를 습득하는 것이다. 종결어미의 습득 과정을 보면, 서술형-의문형-명령형-청유형-감탄형의 순으로 습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비종결어미를 습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비종결어미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어미 모두 같은 시기에 출현을 한다. 그러나 비종결 어미의 전형적인 용법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어미의 습득 과정이 전성어미의 경우보다 빠르다. 연결어미의 경우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적-종속적-대등적 연결어미의 순으로 습득된다. 전성어미의 경우는 관형형 어미, 명사형 어미로 구분되는데, 관형형 어미-명사형 어미의 순으로 습득이 이루어진다.

【핵심어】 언어 습득, 어말어미,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Abstract>

Th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acquisition of final endings

: A case of Korean children under 36 months.

Lee, Sam-hyung · Lee, Phil-young · Im, Yoo-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Korean children's acquisition of final endings. First, children acquire terminal endings, and the order of terminal endings acquisition is a declarative-interrogative-imperative-proposal-exclamative endings. Children, then, continued the acquisition of non-terminal endings. Non-terminal endings has connective endings and transformative endings, and both seem to appear at the same time. However, during a typical use of non-terminal endings, children acquire connective endings prior to transformative endings. Connective endings have three parts; coordinative endings, subordinate endings and subsidiary endings. The acquisition process of connective endings is in the order of subsidiary-subordinate-coordinative endings. Transformative endings are divided into two; adnominal endings and nominal endings. In transformative endings, the sequence of acquisition is adnominal ending-nominal endings.

【key words】 acquisition, final ending, terminal ending, non-terminal ending